

광주 빛그린산단, 국내 유일 전기차·부품 인증센터 가동

배터리·충돌·충격·화재 4개 시험동...평가장비 26종 갖춰 국제기준보다 평가항목 강화...미래차 선도도시 가속화 기대

광주시가 국내에서 유일한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관련 인증센터를 본격 가동하는 등 미래차 선도도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광주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광주 광산구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무창 시의회의장, 이용빈 국회의원, 엄성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장,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한 친환경자동차(전기차) 관련 인증센터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맡아 운영한다. 앞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실차 평가에 기반한 인증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한다.

시는 이번 인증센터 개소에 발맞춰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와 연계한 미래차 산업생태계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전기차 수요 확대와 함께 커진 배터리 화재 위험을 줄이고, 급증하는 제작사의 인증 수요와 사후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증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는 2019년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2만 9916㎡ 부지에 들어섰다. 사업비는 총 393억원(국비 194억원, 지방비 199억원)이 투입됐으며, 인증센터는 배터리시험동, 충돌시험동, 충격시험동, 화재시험 챔버 등 총 4개의 시험동으로 구성됐다.

시험동에는 친환경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 장비 6종, 충돌 안전성 평가 장비 11종, 충격 안전성 평가 장비 6종, 화재 재현 장비와 법적 부대장비 3종 등 총 26종의 평가 장비를 갖추고 있다.

배터리시험동 내 8개 시험실 중 4개는 배터리 화재·폭발에 대비한 방폭구조이며, 각종 극한 상

황에 처한 배터리를 평가하기 위해 진동·충격·침수·압착 시험기도 설치돼 있다.

또 충돌시험동에서는 초소형 전기차부터 총중량 3.5t 이하 대형차까지 차대 차 충돌시험 등을 할 수 있으며, 충격시험동의 6개 시험실에서는 옆문·천장 강도 등도 평가할 수 있다.

이미 2022년부터 운영중인 배터리 충격시험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제기준(10개 항목)보다 강화된 진동·충격·낙하·연소시험 등 12개 항목의 자체 평가시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배터리 안전성 강화에 따른 '배터리 사전인증제'가 시행될 예정인 만큼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인증기관의 역할이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미래차전환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증가 속도에 맞춰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자동차 부품 인증기관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센터와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과 소부장특화단지, 그린카진흥원이 있는 이곳은 광주의 인증과 실증의 보금자리이자 미래 먹거리 중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4일 오후 빛그린산단에서 열린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 개관식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식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청정바다서 심신 치유 '완도해양치유센터' 손님맞이

명사십리 일원 354억 투입 전국 해양치유센터 중 첫 개소 풀장·테라피·먹거리 등 갖춰



'완도 해양치유센터 개관식'이 지난 24일 완도군 신지면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내·외빈들이 시설물을 관람하고 있다.

완도의 청정 바다를 보고 즐기면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완도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열었다.

다양한 풀장, 테라피와 건강한 먹거리도 갖췄다. 센터 주변에는 해양기후치유센터, 해양문화치유센터, 해양치유체험공원이 조성돼 있어 힐링, 휴식, 치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와 완도군은 전망하고 있다.

완도군은 의료, 관광, 바이오 산업이 융·복합된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치유전문병원, 해양치유 호텔(리조트), 골프 테마파크 등을 유치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26일 "지난 24일 전국 4대 권역 해양치유센터 가운데 처음으로 완도군 해양치유센터가 개관했다"고 밝혔다. 해양치유센터 조성이 추진 중인 나머지 권역은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이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국비와 도비 208억원 등 총 354억원을 들여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일원 1만6465㎡ 부지에 연면적 774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완공됐다.

해수·갯벌·해조류 등 지역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환자의 회복과 일반인 건강증진 등을 위해 ▲팔라소·명상·해수풀 3종의 풀장 ▲머드·바스·저주파·

향기·스톤·음악·컬러·소리·해조류 거품 등 9종의 테라피를 포함해 16종의 해양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산업 활성

화 계획과 연계해 국내 해양치유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양관광 활성화와 함께 해양치유의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강기정 시장 "전남도·무안군 대화 하자"

3자 대화 촉구... "통합·분리 이전 모든 방식 논의할 준비"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전남도, 무안군과의 3자 대화 등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지난 24일 시청 간부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은 긴 호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광주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양자(광주시·전남도), 다자(광주시·전남도·함평군·무안군), 3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어떤 형식의 대화 테이블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전남도에서 3자 대화가 우선이라고 했으니, 가장 빠른 일정을 잡아 회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 입장이자 제 소신인 광주 군·민간 공항을 (무안)국제공항에 통합해 무안을 1000만평 공항 시터로 만드는 것에도 동의하고, 최근 (광주시에서) 발표한 군 공항은 함평으로, 민간 공항은 무안으로 분리 이전하는 방식에도 동의한다"며 "모두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올해 4월 25일 특별법 제정에 따

른 정부 지원 근거 마련, 5월 8일 함평군의 군 공항 유치 의사 표명, 6월 26일 광주시의 1조원 지원 계획 발표,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으로 통합 이전에 대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의지 등 일련의 과정을 '전지개벽할 진전'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반면 2018년 8월 20일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의 광주 민간 공항을 무안 국제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한 협약과 광주시·전남도의 군 공항 이전 협력 약속을 '이중 발표'한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불신한 날었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또 "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보면 무안과 광주 (민간)공항 통합 이전 시기는 군 공항 이전 추진 상황과 지역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돼 있다"며 "국가 계획에서도 군 공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민간 공항도 광주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법정관리' 위니아, 생산라인 재가동

"광주시 지원에 감사" 공문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위니아가 생산라인 재가동을 도운 광주시에 감사를 표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위니아 법률상 관리인 김혁표 대표이사는 지난 22일 "광주시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 드린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김 대표는 "기업 회생 신청,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중단된 생산라인을 지난 6일 재가동하려고 협력회사와 부단히 노력했지만, 지지부진한 성과로 의미

를 찾지 못하던 중 광주시의 전방위적 지원으로 금주(20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대표는 또 "고통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 정책자금 지원, 특례보증 등과 세제 혜택을 베풀어 주신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힘난한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종료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온 힘을 다하고 지역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